

## 불계공졸(不計工拙)과 불각(不刻)의 시(時)공(空)



추사 김정희, *자신불*

### 전시개요

전 시 명 : 불계공졸(不計工拙)과 불각(不刻)의 시(時)공(空)

전시기간 : 2015년 9월 11일(금) - 10월 14(수)

전시장소 : 학고재갤러리 본관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추사 김정희 서예

우성 김종영 드로잉, 서예, 조각

### 달 당

김한들 hkim@hakgojae.com

02-739-4937

###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 20150911-1014 추사, 김종영

## 1. 전시내용

학고재에서는 2015년 9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전 < 불계공졸(不計工拙)과 불각(不刻)의 시(時)공(空)>을 연다. 이번 전시는 단색화를 통해 한국 미술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시기에 그 조형성의 뿌리가 되는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옛것을 배워 새것을 창조한다'는 뜻을 가진 학고재의 이념과 지향성을 보여주는 대표 전시가 될 것이다.

김정희(1786-1856)는 '추사체(秋史體)'라는 고유명사로 불리는 글씨와 '세한도(歲寒圖)'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로 대표되는 그림에 이르기까지 학자와 예술가로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조선 시대 인물이다. 김종영(1915-1982)은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이자 교육자로서 한국 현대조각사에 가장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작가다.

김정희는 중국 서예, 김종영은 서구 미술을 수용하면서도 한국의 미와 정신을 담아 재해석,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공통점이 있다. 김정희는 24세에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나 완원(阮元, 1764~1849) 등 당시 중국 주요 문인들과 사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이 꿈에서 보고 싶어 하는 인물로 꼽았으며 김종영은 1953년, 허버트 리드가 주관하여 영국 테이트 갤러리에서 주최한 <무명 정치수를 위한 모뉴먼트> 국제공모전에 출품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공모전에 입상하는 쾌거를 올린 바 있다.

김정희와 김종영의 작품은 모두 '구조의 미'를 담고 있다. 단순함을 기초로 물질과 정신을 잇는 진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추사와 우성은 불계공졸(不計工拙)과 불각(不刻)의 예술정

신과 철학을 화면과 입체라는 2, 3차원의 시공간에서 경영해낸 작가다. 한국의 근현대 20세기는 흔히 식민지, 서구화로 인해 전통과의 단절의 시대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역사와 현대가 어떻게 만나고 재창조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단색화를 기점으로 한국미술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때, 그 뿌리가 되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 자리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미술 세계화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올해 탄생 100주년으로 후배 미술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남긴 김종영은 예술에 입문하면서부터 서예에 조예가 있었으며 지인들에게 "나의 조각은 추사체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추사 김정희를 존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작가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추사가 살아생전 지인들과 주고받은 서신과 더불어 김종영의 드로잉과 서예 등을 함께 선보여 두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이다.

## 2. 전시주제

###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재조명하는 추사 김정희와 우성 김종영

최근 서울대학교미술관, 간송미술관 전시에서 추사 작품을 선보이고 해외 큐레이터들의 자료 요청이 이어지는 등 추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신사동 편집 매장 g라운지에 추사의 작품이 걸렸다. 시대를 뛰어넘어 조선 시대 작품이 현대 패션 공간에 어우러지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이는 추사에 대한 시각이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 새로운 시대가 탄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우성 김종영은 서울대학교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기념전이 열렸다. 김종영은 살아생전 추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으며 그의 영향력을 거듭 언급했다. 일제의 억압과 말살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전통문화가 단절됐었다고 하지만 희미하게나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종영은 생전에 200여 점의 조각작품과 3,000여 점의 드로잉, 800여 점의 서예작품을 남겼다. 그는 서구의 모더니즘과 무위 자연적 인식이 접목된 추상조각 분야를 개척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며 일생을 미술교육에 헌신,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학교재의 이념과 일치하는 고사성어, 온고지신은 옛것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소중해지고 있는 이 가치는 현대 미술사에도 적용된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시대 학자이자 예술가 추사 김정희와 한국 현대조각의 선구자 우성 김종영에 대한 관심은 시간을 초월하여 중요하다.

### 한국 미술 세계화의 조상들: 당대 문인들이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었던 추사, 국내 최초 국제전 수상 조각가 김종영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는 추사 김정희와 우성 김종영의 활발한 활동은 당시 공간을 뛰어넘어 국제무대까지 이어졌다. 김정희는 중국 서예, 김종영은 서구 미술을 수용하면서 한국의 미와 정신을 담아 재해석, 세계 무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공통점이 있다.

김정희는 24세에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나 완원(阮元, 1764~1849)등 당시 중국 주요 문인

들과 사제관계를 맺으며 구양순, 조맹부, 왕희지체를 섭렵한 뒤 기존의 서체를 넘어선 추사체를 탄생시켰다. 이후 그들이 꿈에서 보고 싶어 하는 인물로 손꼽혔으며 동아시아 서예인들에게 '해동 제일통유(海東第一通儒)'라 불리어 현재로 비유하자면 한류스타로 여겨졌다. 최근에도 추사 김정희의 예술적 위상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학술 문화교류의 노력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sup>1</sup>

김종영은 1953년 허버트 리드가 주관하고 영국 테이트 갤러리가 주최한 <무명정치수를 위한 모뉴먼트> 국제공모전에 출품하여 국내 조각가로서 처음 해외 공모전에 입상했다. 전 세계에서 3천 5백 점 출품된 작품 중에 입상한 쾌거였다. 이후 1957년 벨기에 만국박람회에 작품을 출품하였으며 1965년 제8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작품을 선보였다.

### 지역성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한국 미술의 세계화, 그 바탕에 있는 추사와 김종영

단색화를 통하여 한국 미술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시기에 이번 전시는 그 조형성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추사 김정희와 우성 김종영의 작품은 모두 '구조의 미'를 담고 있다. 단순함을 기초로 물질과 정신을 잇는 진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단색화에서도 보인다.

추사 김정희는 19세기 중엽 조선 시대 말기의 실학과 금성학 분야에서 뛰어난 문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중국 서도사(書道史)를 관통하여 새롭게 창조한 추사체는 지금까지 돋보인다. 추사체는 글자만 모양을 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깊이가 뒷받침되어야 이를 수 있다. 학습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있는 깨달음의 단계가 조형미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글씨체 속에 절제한 이념미(理念美)와 필치는 단색화가 지닌 구조적 미의 근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성 김종영(1915-1982)은 서구에서 유래한 모더니즘 조각을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으로 해석하며 고유의 현대성을 이룩했던 예술가다. 그의 조각 양식은 서구의 것을 따르고 있지만, 그 내면의 예술적 배경과 목표는 동양사상에 기초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알맞은 행위를 해야 한다는 지재불후(志在不朽)의 의미에 있다. 이는 노자의 무위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추상조각의 본바탕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세계화의 중심인 뉴욕에서 고독한 삶을 마감했던 김환기는 '우리 것을 세계화하려면 지역성이 보편성을 띠어야 한다.'는 말을 윤명로에게 남겼다. 윤형근 작가는 살아생전 자신의 그림이 추사의 서체에서 비롯됐다고 하였으며 최근 출간된 첫 영문판 화집에는 추사의 유명한 세한도와 그의 그

<sup>1</sup> (사)추사김정희선생기념사업회(회장 최종수)는 2014년 11월 10일 서울 예술의전당 컨퍼런스홀에서 '추사 김정희 선생 국제교류'를 주제로 주최하는 국제교류 학술회의를 열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5년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사업 주요 프로그램으로 추사 김정희, 소동파 등 인문유산을 주제로 한 인문교류발전세미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2007년 시대신보(时代信报) 기자 마오핑(毛峰)이 한국 서예의 예술성을 다루는 기사에서 "그의 화폭에는 그림 같은 감각이 살아있다. 대칭을 이루지 않아도 조화를 볼 수 있고, 강력한 붓질은 따를 자가 없다. 붓 아래의 글자는 활력이 넘친다. 이러한 재능 덕에 그는 자신만의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을 창조해 낼 수 있었다"고 김정희를 언급하며 그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림을 비교한 평론이 실리기도 했다.

### 3. 작품소개

김정희와 김종영의 작품은 모두 '구조의 미'를 담고 있다. 단순함을 기초로 물질과 정신을 잇는 진리체계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추사와 우성은 불계공종과 불각의 예술정신과 철학을 화면과 입체라는 2, 3차원의 시공간에서 경영해낸 작가다. 한국의 근현대 20세기는 흔히 식민지, 서구화로 인해 전통과의 단절의 시대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역사와 현대가 어떻게 만나고 재창조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단색화를 기점으로 한국미술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때, 그 뿌리가 되는 두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 자리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미술 세계화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 대표작품



추사 김정희, *자신불*

'내가 부처고, 곧 부처가 나다.', '현세(에 있는 그 몸이 그대로 곧 부처가 되다.' 를 뜻하는 자신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있지 않음, 그리고 한 생각 사이에 큰 깨달음을 얻는 일을 의미한다.

흔히 '고서화'를 생각하면 고색창연(古色蒼然)함과 고리타분한 느낌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 작품을 보면 정신성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구성을 한 새롭고 세련된 추사의 예술 세계가 보인다.

단색화를 기점으로 한국미술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는 때, 그 뿌리가 되는 추사의 이 작품은 한국미술 세계화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 4. 작가소개

#### 추사 김정희

추사는 영조가 지극히 사랑한 화순옹주와 김한신의 증손자이며 아버지 노경과 어머니 유 씨 사이의 장남이다. 왕실의 내척으로 태어날 때부터 경축 분위기에 싸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비스러운 탄생 설화도 갖고 있다. 민규호가 쓴 "완당김공소전(阮堂金公小傳)"에 따르면 어머니 유 씨는 임신한 지 24개월 만에 추사를 낳았다고 한다. 그 무렵 집 뒤뜰 우물물이 마르고 뒷산 팔봉산의 나무들이 시들었다가 추사가 태어나자 생기를 되찾았다고 한다.

추사는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뛰어나고 일찍 글을 깨우치며 천재성을 보였다. 아버지 노경으로부터 가학(家學)을 받아 서예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어린 시절 집 대문에 써 붙인 입춘첩의 글씨를 우연히 본 재상 채제공이 그의 아버지에게 충고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 아이는 글씨로 대성하겠으나 그 길로 가면 인생행로가 몹시 험할 것이니 다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오." 천재성이 그의 인생에 빛과 그림자를 아울러 드리우고 있음을 노재상이 알아본 것이다. 그가 살다간 19세기 조

선 사회는 18세기 진경 문화에서 벗어나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조선 문화의 보편성으로 흡수해야 하는 전환기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

추사는 24세에 청나라 사신으로 떠나는 아버지 노경을 따라 2개월간 연경에 갔다. 청나라 지식인들로부터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길을 안내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존경하던 당대 대유학자인 옹방강, 완원을 만난다.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그는 첫 만남의 필담(筆談)에서 총명함과 박식함으로 두 학자를 모두 반하게 하고 이것은 평생의 사제 관계로 이어진다. 옹방강의 여섯째 아들인 옹수곤의 호 '성추'가 추사의 호에서 딴 것임은 그들의 특별한 인연을 가늠케 한다.

추사는 귀국 후 옹방강과 완원의 사상을 모두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비록 금석학이 청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옹방강과 완원의 이론을 따르는 학자는 많았으나 각각의 장점을 살려서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에 없었다. 추사는 이후에도 꾸준한 노력으로 조선과 청나라를 넘어 동아시아 서예사의 맥락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연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55세에 때 정쟁(政爭)에 휘말려 떠난 제주도 유배에서 추사체라는 독창적 필법을 완성한다.

추사체는 글자만 모양을 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깊이가 뒷받침되어야 이를 수 있다. 학습 단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있는 깨달음의 단계가 조형미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글씨의 모양보다 소양에서 우러나오는 멋, 그것이 추사체다. 추사의 '세한도'가 국보로 지정된 것은 단순히 예술성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30년 동안 그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이며 19세기 한중 문예 교류의 빛나는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추사는 타고난 천품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 재능을 갈고닦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하늘이 하나를 내려주더라도 나머지 999분을 채우지 않는다면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경계했다. '吾書雖不足言 七十年 磨穿十研 禿盡千毫 내 글씨는 아직 말하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를 밀창 냈고, 붓 일천 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腕下三百九碑 팔뚝 아래 309 비를 갖추다.' 벗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와 한나라 때 예서를 집대성한 "한예자원(漢隸字源)"에 나오는 비문을 쓰고 또 써서 자신의 팔뚝이 삼백아홉 개의 비문을 기억했다는 말은 그의 노력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보여준다.

추사의 마지막 글씨는 봉은사 판전에 몽당붓으로 짹짹 눌러 쓴 것이다. 이때 글씨가 7세 때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글씨체와 매우 흡사하다. 만년 최고의 허허로운 경지에서 다시 처음으로 복귀한 것이다. 봉은사 판전 글씨는 추사가 삶의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로 쓴 것이라 정말 속됨이 없다. 인간의 가장 큰 낙이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평범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추사는 '입고출신(入古出新)'이라는 말을 남겼다. 고전으로 들어가 새로운 것으로 나온다는 뜻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 구본신참(舊本新參), 법고창신(法古創新)과 유사하나 그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담은 말이다. '입고출신'은 능동적 창조자인 예술가들에게 시대를 뛰어넘어 최고의 귀감으로 추사 글씨의 향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추사는 지나간 날의 작가가 아니라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미래 예술가다.

## 우성 김종영

우성 김종영은 1915년 6월 26일 경남 창원에서 영남 사대부 가문인 김해 김씨 22대손인 성재 김기호와 이정실의 오 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서울의 휘문중학교에 재학 당시 17세에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전국서예실기대회에서 1등으로 입선하며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동경미술학교에 유학, 조각을 전공하여 1941년에 졸업하고 이어서 연구과도 수료하였다.

1943년 귀국하여 1948년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에 미술학부가 창설될 때 조소과 교수가 되어 1980년에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근속, 후진양성에 힘을 쏟았다.

1949년에 정부 주관의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시작되자 추천작가로 「여인좌상」을 출품한 이래, 초대작가, 심사위원을 역임하면서 주로 그 전람회를 통하여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여인상, 모자상 등을 소재 삼은 구상이면서 표현적인 형상성에 치중했다. 부인과 가족을 모델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3년에는 허버트 리드Herbert Read가 주관하여 영국 테이트 갤러리에서 주최한 『무명정치수를 위한 모뉴먼트』 국제공모전에 출품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공모전에 입선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후, 김종영은 구상적인 인체 조각에서 나아가 자연을 소재로 한 추상조각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였다. 같은 해 제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 출품된 목조 추상조각인 <새>는 이러한 변화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또한, 1958년에는 경북 포항에 전쟁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전물학도충혼탑>을 제작한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추상적인 순수조형작업으로 기울다가 그 경향으로 완전히 변신, 나무, 금속, 대리석을 재료로 한 단순하고 명쾌한 형태의 작품조각으로 독자적 내면을 실현했다. 그 조형적 특질은 구성적이며 공간적이고, 혹은 유기적인 생명감을 가지는 다양성을 이루었다.

1970년대는 가장 많은 작품을 제작한 시기였다. 당시 삼선동 자택 마당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품제작에 온 힘을 쏟았던 김종영의 모습을 가족들은 '정성으로 만든 작품을 쓰다듬는 선생의 모습이 자식을 대하는 듯한 자애로운 모습이었다'고 회고한다.

1974년에는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과 후학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동백장을 서훈하였고, 1976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선출된다. 그리고 1980년에는 예술 생애를 총괄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하였다. 그러나 1981년 급작스러운 암의 발병으로 인해, 1년여간을 투병하던 김종영은 안타깝게도 1982년 12월 15일 68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한다. 김종영은 서구에서 유래한 모더니즘 조각을 한국적인 정서와 감성 그리고 정신성으로 해석하고 고유의 현대성을 이룩했던 예술가이다. 혼탁한 시대에도 고고한 선비와 같은 작가로 또한 교육자로 헌신하였던 그의 삶과 예술은 20세기 한국 현대조각사에 가장 높은 봉우리로 자리잡고 있다.